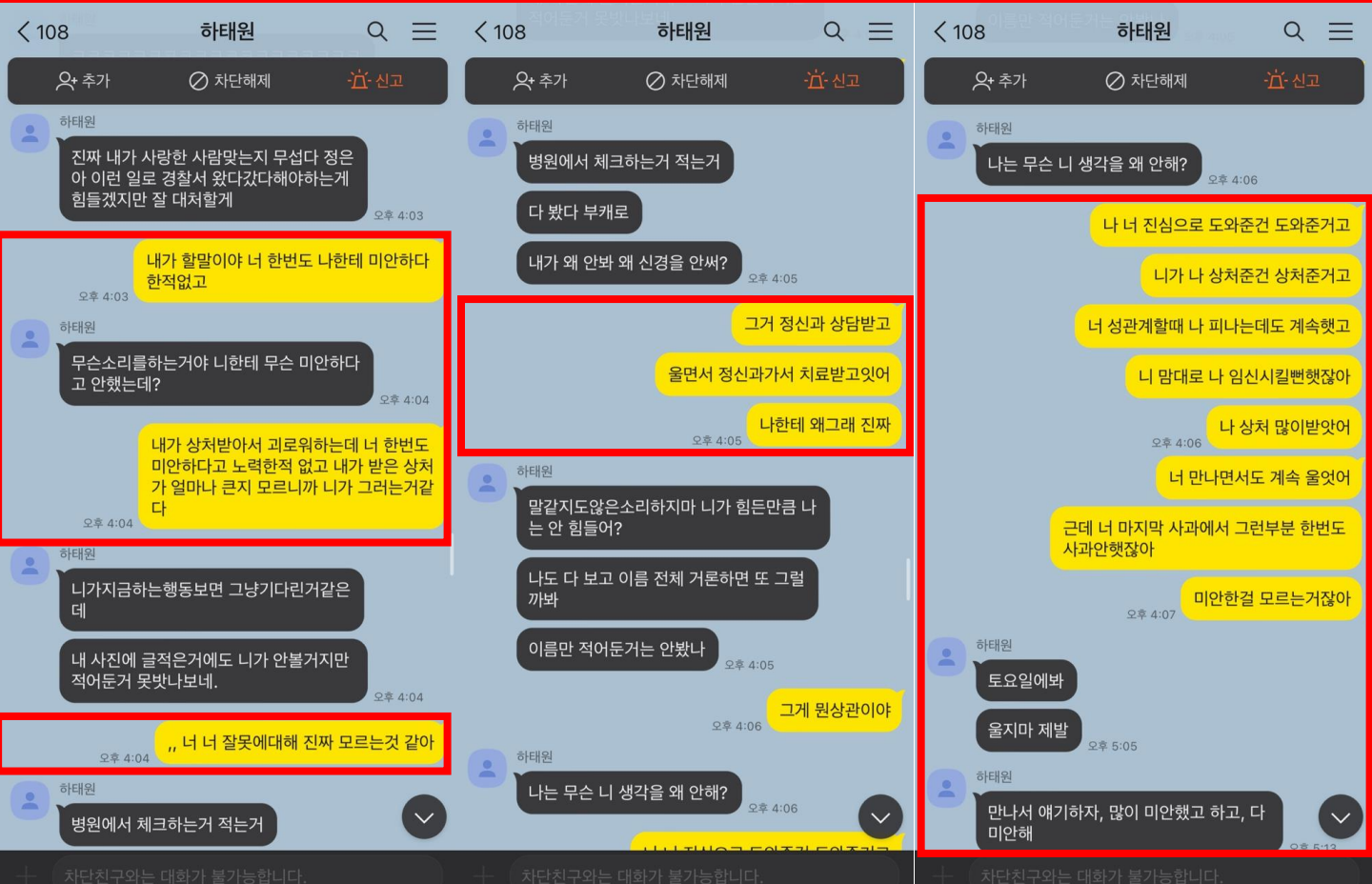


① 2021년 8월 2일 원고 혼자 경찰서에 준강간 고소장을 제출하고 피고에게 카카오톡을 보내고 나눈 대화내용



2:56

5G

< 108

하태원

Q

≡

+ 추가

차단해제

신고

하태원

나는 무슨 니 생각을 왜 안해?

오후 4:06

나 너 진심으로 도와준건 도와준거고

니가 나 상처준건 상처준거고

너 성관계할때 나 피하는데도 계속했고

니 맘대로 나 임신시킬뻔했잖아

나 상처 많이받았어

오후 4:06

너 만나면서도 계속 울었어

근데 너 마지막 사과에서 그런부분 한번도
사과안했잖아

미안한걸 모르는거잖아

오후 4:07

하태원

토요일에봐

울지마 제발

오후 5:05

하태원

만나서 얘기하자, 많이 미안했고 하고, 다
미안해

①-6 대화내용

피고에게 교제하면서
당했던 일들을 나열하니
피고에게 전화가
왔습니다.

제 1심에서
원고가 1시간 동안 콧물을
마스크에 묻힐 정도로
울었다며
원고의 얼굴을 캡처해서
피고가 제출했던 사진의
그 영상통화입니다.

그러더니 이때까지는
모든 사실에 대해
미안하다며
직접 서울에 만나러 와서
사과하겠다고 했습니다.

+ 차단친구와는 대화가 불가능합니다.

2:57

5G

< 108

하태원

Q

≡

+ 추가

차단해제

신고

해명할게 뭐있어 다 사실인데,,

아니

미안하다고 사과하러 온다고 해놓고

왜 웃게한다고해

오후 10:15

사과하러 온다고해서

너무 고마웠어

오후 10:16

하태원

니가 신고한거중에 막말로 이길수있는게
없어

사과하러가는거 맞고

가는김에 니 우는모습말고 웃는모습을

보고싶은거고

그게 욕심이면 그냥

니 모습보다가 오면돼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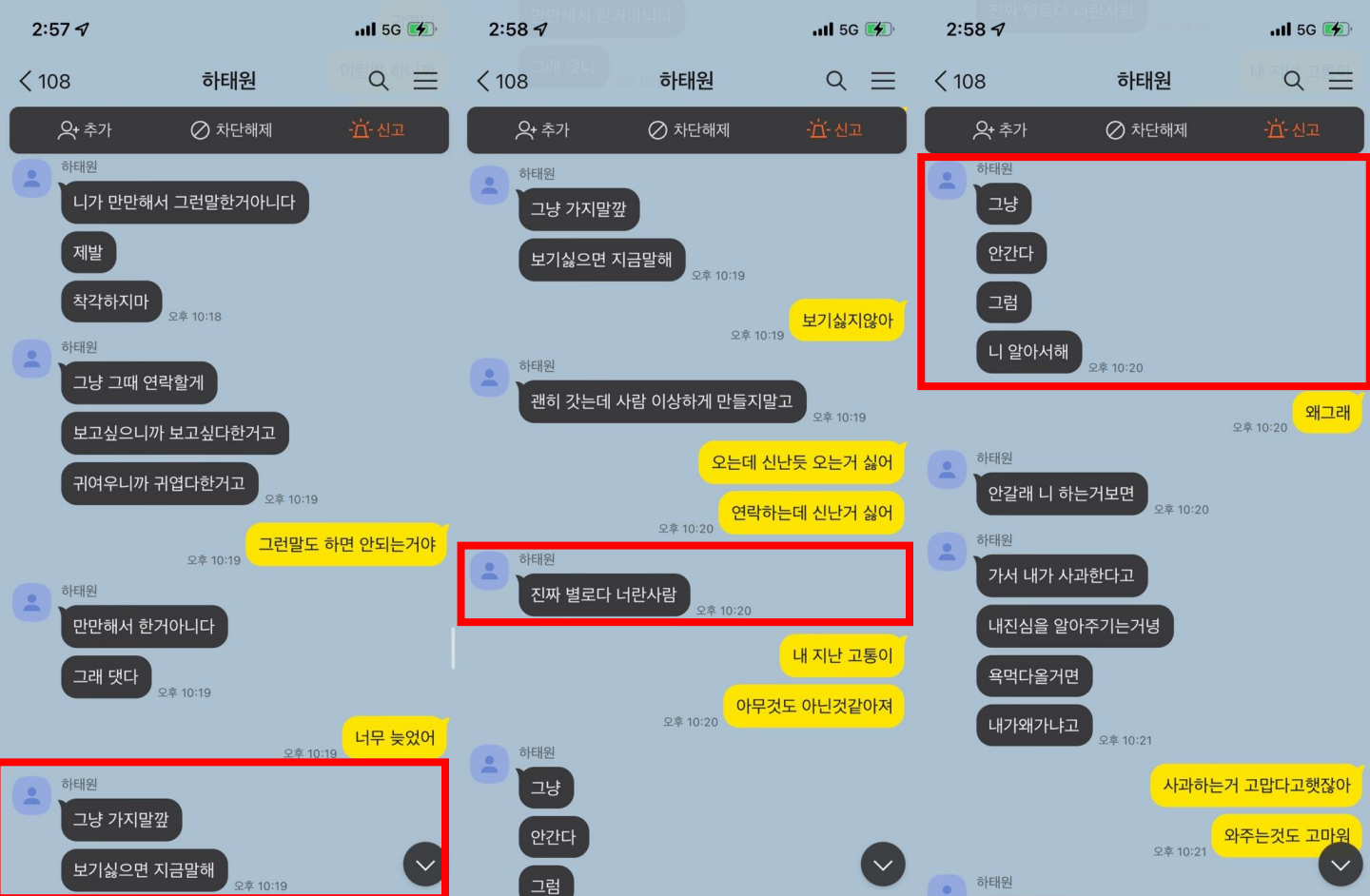
근데 만나서 사과하고싶어서 가는거고

그게 마음에 안들면 지금이라도 말해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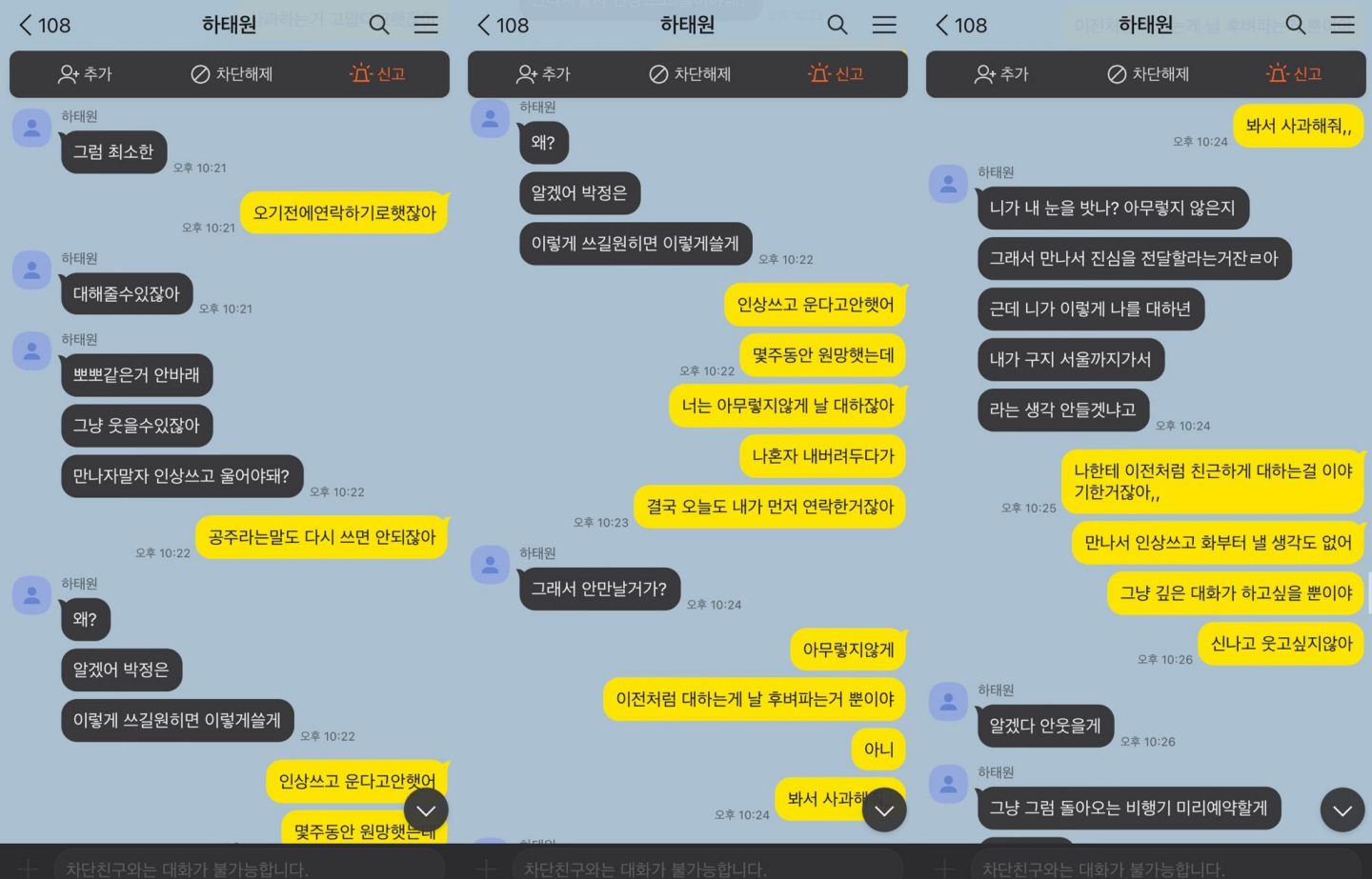
차단친구와는 대화가 불가능합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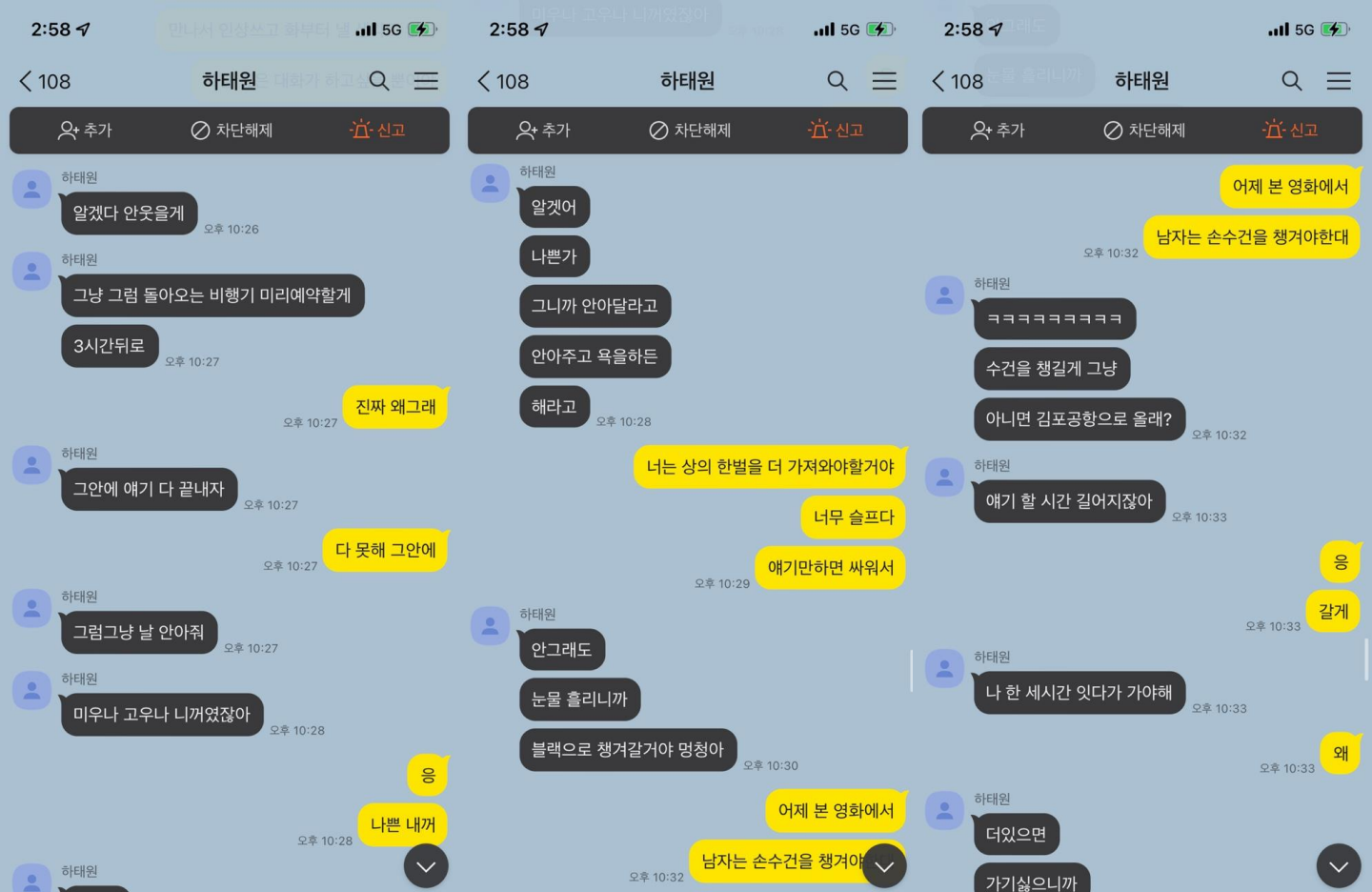
② -4 대화내용

2021년 8월 2일까지는
원고의 준강간 신고한
내용에 대해
'이길 수 있는 게 없다' 고
말하며
원고의 노여움을
사과로라도 풀기위해
서울에 오겠다고
했었습니다.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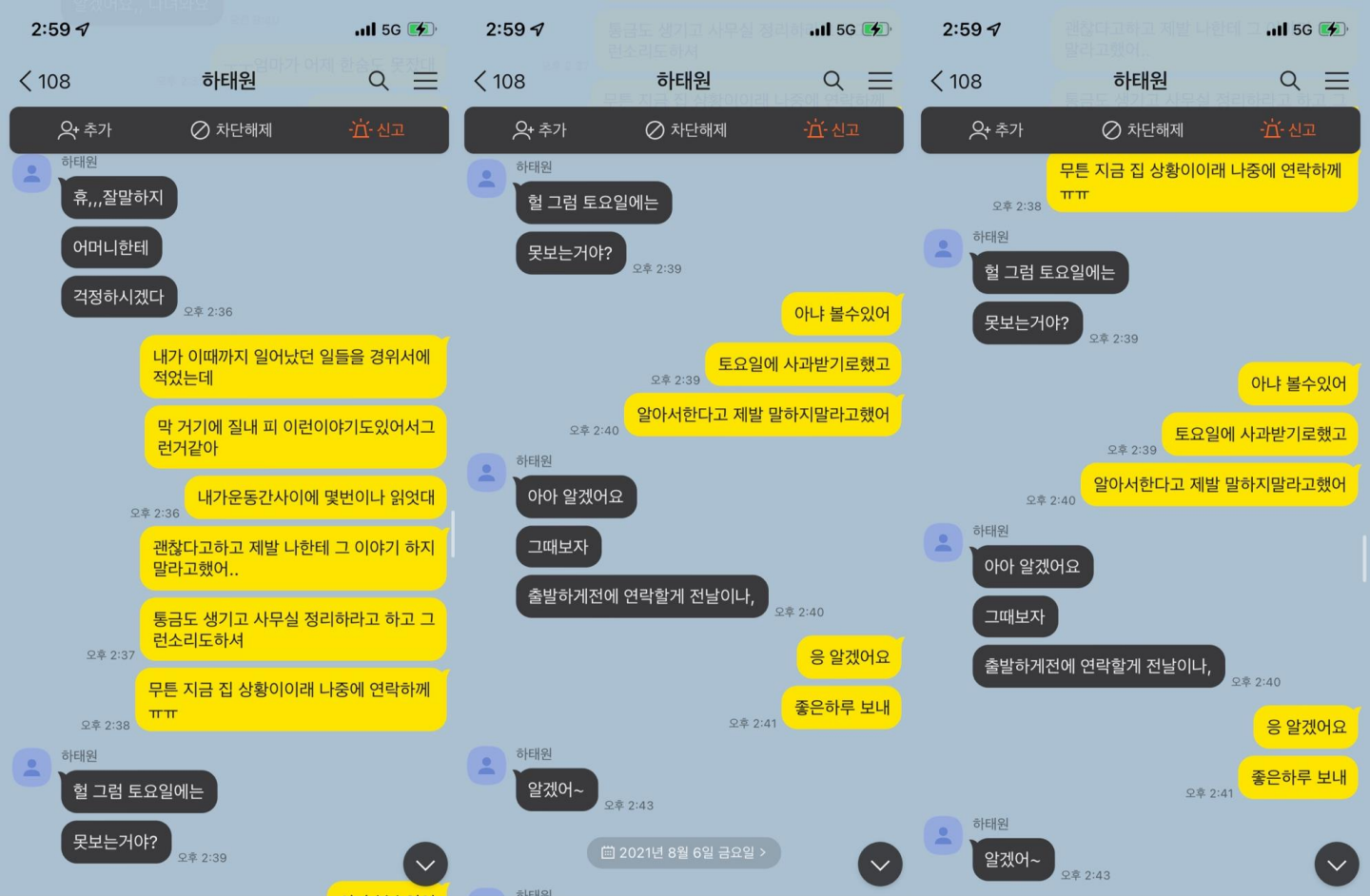
③ 피고에게 애정표현을 하지말라고 하니,
피고는 사과하러 오지 않을 의사를 보였습니다.





④ 신고하기까지 아무런 증거가 없어,
원고는 피고의 어떠한 사과도 절실한 자료였기 때문에,
피고가 사과하러 와주는 날까지 친절하게 카카오톡을 했습니다.





⑤ 그렇게 2021년 8월 7일, 오전 9:40 서울행 비행기를 타고 올라오는 피고와 공항에서 만나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.

